

《이다》 문형의 술어구성방법

박 재 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조선말은 표현이 매우 풍부하여 어떤 복잡하고 다양한 사상감정이든지 능히 섬세하게 나타낼수 있다.》(《김정일선집》 제5권 증보판 308페이지)

우리 말은 표현이 풍부하기때문에 어떤 복잡하고 다양한 사상감정이든지 능히 섬세하게 나타낼수 있다.

조선말표현의 풍부성은 《이다》 문형에 의한 문장구성에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이다》 문형에 의하여 구성된 문장은 언어생활에서 적지 않게 쓰이고있으며 그 류형도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지난 시기 연구성과에 토대하여 《이다》문형에 대한 리해를 보다 넓게 하면서 《이다》문형의 술어조성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몇가지 측면에서 서술하려고 한다.

《이다》 문형은 술어에 《이다》를 취한 문형이다.

《이다》는 바꿈토에 맺음토가 붙은것 즉 《〈이〉 + 〈다〉》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다》는 하나의 맺음토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다, 나, ㅂ니다, ㅂ니까, …》를 비롯하여 체언의 용언형뒤에 붙어서 술어의 형태를 이루는 모든 맺음토와 보조적단어들을 일반화한것이다.

실례로 《저 동무는 대학생입니다./대학생이요?/대학생이래요./대학생인것 같습니다.》에서 술어의 형태를 이룬 《입니다, 이요, 이래요, 인것 같습니다》를 일반화한것이 《이다》 문형에서 《이다》인것이다.

《이다》 문형은 체언술어문형과 꼭같은 것이라고 볼수 없다. 그것은 술어가 체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술어의 형태에서 《이다》를 취할수 있기때문이다.

《이다》 문형의 술어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이다》형문장의 술어는 무엇보다먼저 체언에 《이다》가 직접 결합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술어를 《체언+이다》형술어라고 할수 있다.

《체언+이다》형술어는 《명사+이다》형술어, 《대명사+이다》형술어, 《수사+이다》형술어로 나눌수 있다.

여기에서 《체언》은 자립적인 명사, 수사, 대명사이고 《이》는 바꿈토이다.

《다》의 위치에는 일반적으로 맺음토가 대응되나 실제적인 문장구성에서는 일련의 특성이 나타난다.

《체언+이다》형술어의 형태구성에서는 우선 토의 쓰임에서 특성이 있다.

《체언+이다》형술어에서는 용언술어에서 쓰이는 시킴과 추김의 말법토들이 쓰이지 않는 반면에 용언술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독특한 토들이 쓰인다.

○ 《어머니, 그건 다 내 잘못이에요.》

이 문장의 술어에 쓰인 맺음토 《예요》는 용언술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토이다.

《체언+이다》형술어에만 쓰이는 맺음토에는 《예요, 야, 야요, 라, 라오, 로구만, 로다, ㄹ세, …》등 적지 않은 토들이 있다. 특히 동사, 형용사에 붙는 《다》계렬의 토와 대응되는 《라》계렬의 토들이 적극 쓰인다.

○ 《그 동문 참 훌륭한 청년이라네.》

이 문장에 쓰인 맺음토 《라네》는 《다네》와 대응되는 토이다.

맺음토와 이음토, 규정토가운데는 《라, 랍니다, 라구요, 라오, 라네, 라지, 라누만요, 라는군, 라는구만, 래요, 라면서, 라고, 라는데, 라면, 라더니, 라는, 라던, …》과 같은 《라》계렬의 토들이 적지 않은데 이러

한 토들은 《이다》형문장의 구성과 그 변형에 매우 적극적으로 쓰인다.

《체언+이다》형술어의 형태구성에서는 또한 보조적단어들이 쓰이어 다양한 양태적의미들을 나타내는데서도 특성이 있다.

《체언+이다》형술어에서는 첫째로, 《아야/어야/여야 하다, ㄴ/을수 있다, ㄴ/을수 없다, ㄴ/은것 같다, 는것 같다, ㄴ/을것 같다, 고싶다, ㄴ/은가보다, 는가보다, ㄴ/을가보다》와 같은 양태성의미의 표현수단들이 제한적으로 쓰인다.

《아야/어야/여야 하다, 고싶다, 는것 같다, 는가보다, ㄴ/을가보다》는 쓰이지 않으며 《ㄴ수 있다, ㄴ수 없다, ㄴ것 같다, ㄴ가보다》와 같은 표현수단들에 의하여 가능성이나 확신,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 그 동무는 내가 생각하는것보다 꺾 좋은 사람일수 있어.》

○ 철수의 말이 거짓말일수 없지요.

○ 남철이의 아버지는 전투영웅인것 같아요.

○ 《또 무슨 걱정인가보지요?》

《체언+이다》형술어에서는 둘째로, 《가/이 아니다》에 의하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용언술어문장에서 부정표현수단으로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가 쓰이는것과 대조적이다.

○ 철수는 대학생입니다.

○ 철수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가/이 아니다》형에 의하여 체언술어가 부정될 때에는 주격토 《가/이》가 생략되거나 도움토로 바뀔수 있으며 《아니다》뒤에는 일반적인 형용사에 붙는 토가 쓰이는것이 아니라 용언형에 붙는 토가 쓰인다.

○ 《그 문젠 아무것도 아니요.》

○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첫째 실례에서는 《가/이》가 도움토 《도》로 바뀌어 쓰이었으며 둘째 실례에서는

《아니다》가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체언의 용언형에 붙는 《예요》가 쓰이었다.

《이다》형문장의 술어는 다음으로 불완전명사에 《이다》가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이러한 술어를 《불완전명사+이다》형술어라고 할수 있다.

우리 말에서 불완전명사들은 량적으로 많으며 의미도 다양하다.

불완전명사에는 《것, 노릇, 분, 자, 짓, 따위》와 같이 사람이나 대상, 행동을 일반화하여 나타내는것들도 있고 《대로, 데, 무렵, 족족, 중, 채, 탓, 때문, 쪽, 쯤》등과 같이 《시간, 원인, 방식, 장소, 방향, 과정》등 다양한 관계적의미를 나타내는것들도 있으며 또한 《것, 리, 만, 번, 법, 사, 상, 성, 손, 수, 줄, 척, 체, 터, 양, 따름, 뿐》등과 같이 양태적의미를 나타내는것들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완전명사들이 모두 《이다》형을 취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실례로 불완전명사 《것》은 대부분의 격형태를 가지는 동시에 《이다》형태도 가질수 있으나 불완전명사 《리》는 일부 격형태를 가질뿐 《이다》형은 취할수 없다.

불완전명사가운데서 《것, 노릇, 분, 자, 짓, 대로, 무렵, 중, 탓, 때문, 쪽, 쯤, 뿐, 터, 따름, 만》과 같은것들이 《이다》형을 취할수 있다.

《불완전명사+이다》형술어는 불완전명사 앞에 체언이 오는가 용언이 오는가에 따라 《체언+불완전명사+이다》형술어와 《용언+불완전명사+이다》형술어로 갈라볼수 있다.

《불완전명사+이다》형술어에서 불완전명사들은 대상적의미를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양태적의미를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며 언어적단위들의 관계적의미를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 그가 특별히 감탄한것은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이 뿌리가르기방법으로 심은

다름나무모에서 짝이 트기 시작한것이 였다.

○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깡그리 다 바친 사람만이 생의 고귀한 흔적을 후대앞에 남길수 있는거요.

○ 《내가 반대하는건 이 증유절약안이 우리의 현실에 피동적이기때문입니다.》

첫째 문장의 술어에 쓰인 불완전명사 《것》은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이 뿌리가 트기방법으로 심은 다름나무모에서 짝이 트기 시작하였다.》를 대상화하여 주어를 이루는 단위인 《그가 특별히 감탄한것은》과 맞물려주고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불완전명사에는 《것, 분, 자, 노릇, 짓》이 속하는데 그중 《것》이 가장 많이 쓰인다.

둘째 문장의 술어에 쓰인 불완전명사 《것》은 《는것이요》의 관용구적형태를 이루어 《확신》의 양태적의미를 표현하고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불완전명사들은 《것, 뿐, 더, 따름》등인데 여기에서도 《것》이 큰 몫을 차지한다.

셋째 문장의 술어에 쓰인 불완전명사 《때문》은 《이 증유절약안이 우리의 현실에 피동적이다.》를 묶어서 주어인 《내가 반대하는건》과 맞물려주면서 술어가 주어와의 의미적관계에서 원인으로 된다는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불완전명사들은 《때문, 탓, 무렵, 대로, 만, 중, 쪽, 쯤》등인데 여기에서는 《때문》이 가장 적극적으로 쓰이고 《탓, 무렵》도 일정하게 쓰인다.

《이다》형문장의 술어는 다음으로 보조적명사에 《이다》가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이러한 술어를 《보조적명사+이다》형술어라고 할수 있다.

우리 말에서는 자립적인 명사들이 보조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명사부류에는 《걸음, 결과, 길, 김, 나머지, 다음, 동시, 대신, 마련, 말, 모양, 바람, 반대, 반면, 밖, 법, 셈, 즉시, 참, 턱, 통, 판, 한, 한편, 이상》과 같은 단어들이 속하는데 이 명사들은 용언의 규정형, 체언의 절대격형 또는 《기, 게》형다음에 결합하여 《에, 로》형이나 절대격형 또는 서술형으로 쓰이면서 《시간, 대립, 원인, 조건, 방식, 비교》나 또는 양태적의미를 나타낸다.

보조적명사들가운데서 《이다》형을 취할수 있는 대표적인 명사들은 《말, 모양, 법, 길, 마련, 셈》 등이다.

○ 《우리가 피워가는 쇠물꽃은 그 어느 꽃에도 없는 뜨거운 향기를 내뿜고있소. 순결한 향기를 사시절 풍긴단 말이요!》

○ 확실히 령감이란 불시에 떠오르기는 하지만 언제나 노리는 사람에게만 찾아드는 모양이었다.

○ 글공부를 하겠다고 큰뜻을 품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참아내는 인내성이 있어야 한단다. 그것이 없으면 뜻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야.》

우의 첫 문장에서는 《ㄴ 단 말이요》에 의하여 《강조》의 양태적의미가 나타나며 둘째 문장에서는 《는 모양이다》에 의하여 《추측》의 양태적의미가 표현되고 셋째 문장에서는 《는 법이야》에 의하여 《필연성》의 양태적의미가 표현되었다.

《이다》형문장의 술어는 다음으로 부사에 《이다》가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이러한 술어를 《부사+이다》형술어라고 할수 있다.

부사는 일반적으로 토없이 동사나 형용사앞에 결합한다. 그러나 우리 말에서 부사는 특수하게 《이다》형을 취하여 술어를 이룰수 있다.

○ 《허, 이런 절구라구야. 닥치는대로 냠냠세그려.》

이 문장에서는 상징부사 《냠냠》에 《이

다》가 붙어서 술어를 이루었다.

이러한 술어는 언어생활에서 그리 활발하게 쓰이지는 않지만 《거야 물론이지요.》, 《이 동무가 먼저입니다.》, 《아이구 깜짝이야. 간떨어지겠네.》와 같이 일부 부사에 《이다》가 붙어서 이루어진 술어는 아주 자연스럽게 쓰인다.

《이다》형문장의 술어는 다음으로 일부 토뒤에 《이다》가 결합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술어를 《토+이다》형술어라고 할 수 있다.

《이다》앞에 오는 대표적인 토는 《아서/어서/여서》이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준엄한 시련의 나날 멀고 험한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헤쳐가신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의 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 끝없이 휘황찬란한 미래를 펼쳐주시기 위해서였다.

○ 진호는 새삼스런 눈길로 태수를 바라보지 않을수 없었다. 덜통할뿐아니라 아무 문제나 직선적인 감정 하나로 식별하기에 버릇된 그가 이런 말을 한다는것이 놀라와서였다.

○우리가 처음 바깥구경을 한것은 팔로군이 놈들을 쳐부시고 마을을 해방시켜 주어서였습니다.

우의 실례들에서 이음토 《아서/어서/여서》는 각각 목적, 원인, 선후의 의미로 쓰이었는데 그뒤에 《이다》가 결합하였다. 이때 《아서/어서/여서》가 나타내는 의미는 문맥에 따라 주어와의 의미적관계를 나타낼수도 있고 앞문장과 의미적관계를 나타낼수도 있다.

첫째 문장에서는 술어가 주어와의 관계에서 목적으로 된다는것을 나타내고 둘째 문장에서는 술어가 주어와의 관계에서 원인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그 문장전체가 앞문장의 원인으로 된다는것을 나타낸다면 셋째 문장에서는 술어가 주어와의 관계에서 앞선 사실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다》는 일부 격토와 도움토뒤에도 결합하여 술어를 이룰수 있다.

우리는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이다》문형의 술어구성방법을 비롯하여 언어학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